

파라과이 선교 소식(12월)

2018년 정유년 한 해를 보내면서 파라과이 선교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주시는 여러 선교동역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사역들이 쉬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선교동역자님들의 기도 후원으로 한 해 사역을 잘 마무리하면서 무술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들에게 직접 메일이나, 서신, 기타 통신으로 위로와 힘을 주신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때로는 힘이 들지만 참 좋으신 분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위로와 격려가 저희들 마음가운데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12월 선교소식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8일(금)에는 몇몇 지교회 목사들과 리더들과 함께 수도에서 70km 떨어진 나병인 요양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약품과 물품들을 전해주고 기도와 위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도 아직도 나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병은 후진국형 질병이라고 하지요? 나병보균자라도 잘 먹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 음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양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곳은 수녀님들이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요양소에는 78명의 환자들이 2개의 남자병동과 2개의 여자병동에 나누어져서 살고 있었고, 감염이 안된 나병환자 가족 약 100여명이 병동 밖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30-40년 된 나환자에서부터 여기 온지 불과 2년 밖에 안된 사람들 등 다양하게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로 태어나 처음부터 이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일만 한번 예배당(성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날은 자기의 병동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한 날은 금요일이라서 각 병동과 병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신교 신자라는 한 남자 나환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자 병동은 게이들이 우글거린다고 합니다. 저녁 일과가 끝나고 관리인들이 나가고 나면 남자끼리 동성애가 벌어지는데, 이 분의 표현으로는 마치 소돔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적욕구는 있는데 세상에 나갈 수도 없고 같은 요양소에 있는 여자와도 격리시켜 놓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욕망을 해결하고 있는데 남자 병동이 그렇다면 여자 병동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의 말로는 관리하는 분들이 모를 거라고 하는데 저는 수녀들이 알고도 모르는 척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끓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저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가서 약품과 물품들을 전해주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지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무거운 마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소동성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서도 믿는 자를 두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들은 연말 연시를 맞아 여러 가지 행사와 수련회로 매우 바쁘는데 장로교신학대학과 남미기독교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장로교신학대학은 11월 29일(목) 졸업식을 갖고, 3월 4일 개학할 때까지, 남미기독교학교는 12월 5일 12학년(고3) 졸업식을 끝으로 2월 7일 개학할 때까지 긴 방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12월은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남미기독교학교의 종업식과 졸업준비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지교회 목사들과 각각 따로 만찬회를 하느라고 유난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유난히도 좋아하는 파라과이 일꾼들에게 나름대로 최고의 선물도 주면서 성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1월은 학교들이 방학을 하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또한 바쁜 계절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많은 휴가 기간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수련회 기간이고 내년 새 학기를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특히 남미기독교학교는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이를 위한 입학 시험(12월에 2회, 내년 1월에 2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 학교가 있는 선교센터에 해마다 학교 및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를 해야 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학교 건물 외벽 전체를 새로 페인트 칠하고 파손된 곳을 수리하느라고 돈이 들어갔지만 금년에는 실내체육관의 파손된 바닥과 벽을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다시 새롭게 단장하느라고 경비가 꽤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월 7일에 통합선교사회의 노회설립을 위한 헌법심의 모임이 있고 그 외에 각종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교회청년연합수련회(10-12), 파라과이선교사수련회(14-16), 지교회목사수련회(17-19), 파라과이통합선교사수련회(28-29), 남미기독교학교 교사수련회(2월 4-5)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은 그냥 참여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 세 개의 수련회는 저가 직접 간여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를 잘 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번 지교회청년연합수련회는 다른 수양관에서 하지 않고 본 선교부 내에서 남미기독교학교 시설과, 새생명교회 건물을 이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미기독교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 가까운 곳에서 하므로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수양관 사용료와 버스 임대비용을 절약하므로 전체 경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본 선교부에는 수영장만 없을 뿐, 다른 시설들은 다른 수양관들보다 여러 가지로 훨씬 편리하고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다른 어떤 수련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선교부의 연말 연시 행사 사진을 첨부로 보내 드립니다.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 성령의 능력으로 파라과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2. 10개 현지인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3. 파라과이 장로교통합노회의 설립을 위하여
4. 파라과이 장로교신학대학과 남미기독교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5. 어려움 가운데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하여
6. 저의 Ph.D 논문의 빠른 완성을 위해서

2018년 10월 11일

파라과이에서 임성익 드림

1. Mision Cristiana 교회 성탄절 행사



2. 나병환자 요양소 방문 위로



남자병동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준 남자환자(가운데)와 이 병동에서 태어난 여자 장님환자(그녀도 개신교신자였다)

밖에 나와 쉬고 있는 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사진을 찍음



3. 남미기독교학교 연말 행사



4. 장로교신학대학 연말 행사

